

[ 사회 ]

# 서울 7개 사립대 2010학년도부터 수능에 국사과목 '필수'

## 인문사회계열 반영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수능능력시험에서 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 7개 사립대의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사회화과교수)은 22일 "지난주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모여 수능 국사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인문사회계열 입시에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7개 대학별 입학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확정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

진 중인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부합하는 것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 다른 대학들의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국사의 필수 지정이 실시안으로 확정되면 2010학년도부터 이들 7개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에서 반드시 국사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능 시험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씩 수험생들이 선택해 응시하도록 돼 있다.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선택 비중을 보면 총 7만5천860명

이 응시한 국사는 전체 11개 과목(윤리,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중 일곱 번째로 집계됐다.

7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이 등급제로 전환되면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쉬운 과목으로 풀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사 필수 지정에 합의했다고 김 처장이 전했다.

7개 사립대는 우선 인문사회계열을 대상으로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자연계열로까지 확대 적용할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국악 선율

있다.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회 호남예술제' 국악 관현악 합주 부문에 출전한 광양제철초교 어린이들이 흥겨운 가락의 '축제'를 연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교사의 4개월 '쪽지 관심' 왕따 학생 마음을 열었다

## 완도 금당중 이상원 교사

## 학교폭력 극복 우수 선정

‘교사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학교 폭력을 막는다.’

완도 금당중학교 이상원(44) 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Y(14)양의 태도에

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담임이 질문을 해도 통명스러운 말투와 무표정으로 답했고,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해서는 경계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왕따'였다.

이 교사는 "관심을 보이지 않 상황이 좋아지지 않" 하는 생각으로 수차례 Y양에 말을 걸고 관심을 보였지만, 더욱 귀찮아 하는 표정과 함께 오히려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포기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Y양에 다가갔다. 쪽지를 써 넉넉게 수차례, 드디어 Y양의 반응이 왔다. 하지만, Y양은 직접 담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같은 반 친구를 통해 답장을 해왔다.

이후 이 교사와 Y양은 하루에 한 차례씩 쪽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를 나눴다.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쪽지'라는 매개로 관심과 애정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연 Y양은 이 교사의 쪽지 세레 4개월 만에 말문을 열었다.

이 교사는 이 틈을 타 Y양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학교생활·장래 희망 등 어떤 이야기라도 좋았다. 말문을 닫으면 모든 게 허사였기 때문에 틈만 나면 Y양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결국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뒀고 6개월 뒤에는 Y양이 그동안 말하기 힘들었던 부모의 이혼 사실·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이야기 등을 털어놓았다. 이 교사는 Y양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인생의 목표도 설정해 주는 큰 성과를 얻었다.

이 교사는 "뜨거운 애정과 관심만 보여준다면 '왕따' 등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형식적인 학생 지도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관심과 애정이면 청소년기의 방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사의 상담 사례는 최근 경찰청이 발간한 '학교 폭력극복 및 선도사례'에 심사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책자에는 전국의 학교 폭력극복 및 선도 사례를 응모해 최우수작 등 총 20편의 사례가 실렸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법 '사건관리부' 신설

## 28일부터 자백·부인 사건 분리 재판

광주지방법원이 신속한 형사 단독 사건 재판을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否認)하는 사건을 구분해 재판키로 했다.

광주지법은 22일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 단독사건에 대한 재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으로 구분·심리키로 하고, 현재의 형사 단독재판부의 사무분담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모든 형사 단독 사건을 배당받아 제1회 공판기일을 통해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으로 구분하는 '사건관리부'를 신설키로 했다. '사건관리부'는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자백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양형심리를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부인사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광주지법이 '사건관리부'를 신설한 것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해 온 부인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백 사건을 일반 재판부로 배당할 경우 자백사건에 대한 심리가 지연된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사건관리부'는 기존 형사 1·3·5 단독 등 3개 재판부로 이뤄지며, 3명의 단독 판사는 기존 수석부장판사가 전담하던 사건배당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는 기존 부인사건 전담재판부(형사 1·3·7 단독)·소년사건재판부(10단독) 등의 재판부로 꾸러지게 됐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잔뜩 찌푸린 하늘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16~27℃
목포	구름많음	16~25℃
여수	구름많음	16~22℃
순천	구름많음	15~25℃
보성	구름많음	13~29℃
담양	구름많음	14~26℃
영암	구름많음	14~26℃
강진	구름많음	13~24℃
고흥	구름많음	13~28℃
곡성	구름많음	15~26℃
구례	구름많음	13~26℃
장흥	구름많음	16~27℃
해남	구름많음	14~27℃
완도	구름많음	16~27℃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7:10 썰물 < 12:45  
여수 밀물 < 01:48 썰물 < 08:18

▲해돋이 05:24 ▲해질 19:35 ▲달출 11:29 ▲달질 0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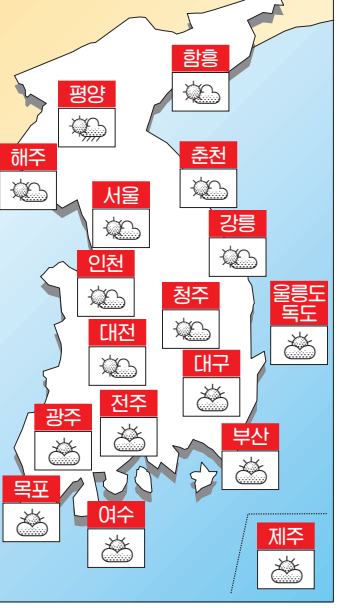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씨						
최저/최고	18/23	18/26	15/28	16/27	18/24	16/26

## 5월 23일

(음 4월 7일)

◇전국날씨



# 세포 사멸 조절 단백질 구조 규명 뇌졸중·심근경색 치료 가능성 커져

세포 사멸을 조절하는 단백질 구조의 일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 뇌졸중·심근경색 등 세포 사멸 관련질환 치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 정재준·전영호 박사연구팀은 세포사멸 촉진 단백질인 'Mst1'의 단백질삼차구조 도메인 'SARAH'의 3차원 구조를 규명, 이에 관한 논문을 PNAS(미국 국립과학원회보) 인터넷판에 게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Mst1 단백질을 매개로 하는 세포 분열 및 세포사멸 조절기전은 이 단백질이 'SARAH' 도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RASSF'라고 하는 암 억제 단백질 등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메인은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분자단위 단백질 구조를 구성하는 기능적 부분 또는 특정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1개 단백질은 1개 또는 여러 개의 도메인으로 이뤄져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세포사멸 기전을 조절하는 SARAH 도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 SARAH 도메인의 3차원 구조가 규명됨으로써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한 세포사멸 조절 기전이 입체적으로 밝혀지게 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49명 석탄일 가석방

오는 24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범 수형자 49명이 가석방된다. 광주지방교정청은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 교도소 수형자 중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48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교도소별로는 광주교도소의 경우 강도 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직업훈련을 통해 양복기공사·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박모(41)씨 등 모범수 18명이 가석방된다. 이밖에 ▲목포교도소 12명 ▲순천교도소 8명 ▲장흥 교도소 11명 등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6월 1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면학분위기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 꽃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시터이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인증독치로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롯데백화점 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년,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원회, 교회행사, 아이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 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일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조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는데, 이반에 특별공인된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조사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인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게 하거나 사고현장에 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령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됨을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됨에 신규 고용증가에 대해 법적공인력 부여, 조사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학력, 경력 무관 평균 60점 이상 합격

업체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경찰,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법규법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 무관하다. 특히, 일반시험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6-5115  
자료제공:광주국립대학교경찰교육원